

사회 >> 3면

17년 만의 대학 등록금 인상, 그 여파는?

기획 >> 6면

새 얼굴, 새로운 변화 - 그들이 '하나'가 된 이야기를 들어보다

현장르포 >> 7면

유행은 돌고 돈다... 그때 그 시절의 트렌드는?

제587호

2025년 3월 21일(금)

즐거움과 설렘으로 물든 2025년 신입생 문화제



이번 연도 신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대 신입생 문화제가 2월 24일 14시 수인관에서 개최됐다.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1,571명의 신입생, 학과장,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4일 진행된 신입생 문화제 1일 차는 입

학식, 총학생회 OT, 재학생 축하공연, 학과별 수강 신청, 예술대 단대 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개식사로 신입생 문화제와 입학식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후, 미래융합학부2 수시 수석 송채연 학우와 자유전공학부 정시 수석 허유나 학

우의 장학 증명서 수여가 진행됐다. 이후 김범준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준 대외협력부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총학생회 OT에서는 먼저 중앙운영위원회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전했다. 그 뒤 교내 주요 시설과 학교 찾아오는

방법, 주요 학사 일정 등을 안내하고 끝으로 총학생회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개 도중 인스타스토리 이벤트와 행운의 번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OT 시간에 재미를 더했다.

총학생회 OT 뒤에는 재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진행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축하공연은 실용음악팀 남코여와 더나인의 신나는 밴드 무대와 자랑스러운 실용무용팀의 댄스 무대로 꾸며졌다. 이후 진행된 수강신청에서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네트워크 상태와 혼돈된 수강 신청 시간으로 인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와 학교 측의 빠른 조치로 신입생 대상 교과목 신청 및 증원, 28일 추가적인 수강신청을 진행해 신입생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수강신청 후에는 예술대학 OT와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예술대 단대 마당이 계속됐다.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장기지랑과 조별로 진행된 퀴즈 맞추기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가장 점수가 높은 조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쾌한 진행, 스태프들의 노력 덕분에 신입생 문

화제 1일 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수 있었다.

이틀 차인 25일에는 미래융합대학의 단대마당이 진행됐다.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부 및 학과에 학생이 많은 관계로 두 시간대로 나눠 진행됐다. 13시부터 먼저 시작된 단대마당에는 미래융합학부1, 군사학과,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가 참여했다. 16시부터 진행된 두 번째 단대마당에는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가 참여했다.

미래융합대학 단대마당은 OT, 사전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됐다. 레크리에이션은 인물 맞추기, 포스터 일부 분 보고 영화·드라마 맞추기, 노래 맞추기 등의 게임으로 진행됐다. 1등 조에는 상금 150,000원, 2등 조는 상금 100,000원, 3등 조에는 상금 50,000원이 지급됐다. 알찬 내용과 재밌는 구성에 상금까지 지급돼, 참여한 학우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17년 만의 대학 등록금 인상, 그 여파는?

지난 1월 21일부터 5차에 걸쳐 진행된 서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인상이 결정됐다. 2월 11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된 등심위 결과 보고 게시물에 따르면 학부 재학생은 2%, 신입생은 4.85%가 인상됐다. 이외 스터디언어과정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3.76% △예체능 계열 2.83% △외국인 일반 학부생 4.85% △글로벌관광경영학과 9.9%가 인상됐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3면) 사회 기사에서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사 령

3월 21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합니다.

- ▶ 임 사회부장 김나연 (일어 23)
- ▶ 임 수습기자 최소정 (아동 22)

서경대를 떠나 더 넓은 미래로... 제75회 전기 학위수여식

지난 2월 20일 목요일 서경대학교 제75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학위수여식은 문예관 문예홀에서 11시에 시작했다. 식순은 개식, 국민의례, 학위증 수여, 상장 수여, 공로상 수여, 축사, 교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총장의 불참으로 축사와 학위수여 대표자에게 학위증 교부는 대외협력부총장이 대신했다. 서경대는 이날 박사 20명, 석사 147명, 학사 1,111명으로 총 1,278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학과(부)별 학위수여 대표자는 아동학과 이수빈, 광고홍보콘텐츠학과 이준재,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박소희, 경영학부 임서현, 구엔티호아, 공공인재학부 이설, 군사학과 김현수, 소프트웨어학과 윤웅상, 금융정보학과 문동주, 전자공학과 김용진, 컴퓨터공학과 김호중, 나노화학생명공학과 이현지, 물류시스템공학과 전예빈, 도시공학과 김민서, 토목건축공학과 조민서, 디자인학부 김태준, 음악학부 서예광, 공연예술학부 박소윤, 실용음악학과 김수연, 뮤지컬학과 박소연, 무용예술학과 이다은, 영화영상학과 원희진, 헤

어디자인학과 신희은, 메이크업디자인학과 박하은, 가기모토 에리,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서가영, 송완랑 학우였다.

전체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최우수상은 컴퓨터공학과 김호중 학우가 그 영광을 안았다. 각 단대별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우수상은 아동학과 이수빈, 군사학과 김현수, 경영학부 구엔티호아, 소프트웨어학과 윤웅상, 실용음악학과 김수연, 헤어디자인학과 신희은,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송완랑 학우가 차지했다.

공로상은 컴퓨터공학과 김종휴,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서재완, 금융정보공학과 한기찬, 광고홍보콘텐츠학과 전현지, 경영학부 장길호, 헤어디자인학과 김민경, 박형주, 물류유통경영학과 유도균, 미용예술학과 최민우, 미용학점공 한태희 학우가 차지했다.

학위수여식 이후 대표자 외 졸업생들의 학위증서 교부는 12시부터 14시까지 학과별 지정 강의실에서 따로 진행됐다.

한빛 총학생회는 청운관 L층 로비



에서 학사복 대여를 진행했다. 대여는 학위수여식 당일 9시부터 최종 반납 시간인 16시까지 가능했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대여료가 20,000원이었으며 보증금 포함 30,000원을 납부 후 반납 시 10,000원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현장 대여자에게는 대

여료가 30,000원이었다. 학사복 리본은 한정수량 200개를 선착순으로 소진 시까지 무료 대여했다. 작년과 달리 구 학사복은 대여가 불가했다.

포토존은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는 문예홀에 전날부터 당일 15시까지 설치됐다. 맑은 날씨 덕분에 SKON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는 16시까지 취소 없이 진행됐다. 또한 스퀘어에서 졸업생들에게 무료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날 헤인관 1주차장은 16시까지 무료 개방됐다.

한편, 이날 서경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박익관 앞에서 간식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학우들은 QR코드를 통한 진로 취업 지원 수요 설문조사 후 햄치즈샌드위치 받을 수 있었으며 음료는 간식차 방문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서경대학교 제1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하나' 출범...

작년, 서경대학교 학사 구조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융합대학의 제1대 학생회가 출범했다. 신설 단과대인 미래융합대학(이하 미용대) 내 미래융합학부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 총 3개의 학부가 신설됐다.

제1대 미용대 학생회 '하나'는 '하나 되어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정학생회장 신윤아(경영 23) 학우, 부학생회장 이준희(전컴

23) 학우가 임기를 시작했다. 이 둘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융합대학의 발전은 학우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발맞춰 나가자는 의지를 보였다.

하나 미용대 학생회는 주요 공약으로 △미용대 신입생 MT 진행 △시행 기간 간식 지원 △스포츠 대회 진행 △복지 물품 대여 △소통 창구 활성화 △사무장부 공개를 내 걸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맞춤교육과 지원으로 높은 취업률 달성한 서경대... 4년제 종합대학 중 2위

서경대학교가 서울 주요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2위를 달성했다. 지난 2월 17일,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내 졸업생 취업률이 73.4%를 기록했다. 72.6%의 취업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무려 0.8%나 상승했다. 총졸업자 1,362명 중 취업자 수가 854명에 달하며 5년 연속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성과를 보였다.

서경대학교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과 함께 특성화 명문 종합대학으로 부상하며 계속해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등의 전문적인 취업 지원 역시 높은 취업률 달성에 기여했다. 서경대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진로와 취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2024년 3월 1일에 설립됐으며 산하에 진로취업지원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해 진로취업지원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으로는 △2024학년도 Career Jump Up! 취업캠프 △진로방탈출 프로그램 △Career Challenge Campus 프로그램 △기업 및 직무분석 경진대회 △숏폼 콘텐츠 공모전 등이 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초 2025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2차 모집과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학생 공지를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진로 및 취업 지원을



▲ 출처: 포토뉴스

하는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이외의 15~34세 미만의 지역 청년들의 취업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 강화 △전문 상담 지원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청년

고용지원으로 나뉜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도우려 노력하는 서경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유담관 9층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취업에 도움을 얻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다. 김민재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새 학기 맞이 새 단장 하자!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헤인관 시청각실이 새 단장을 마쳤다. 의자와 책상 간 거리를 좁힐 수 없었고 부서진 의자도 많아 헤인관 시청각실 책걸상 수리는 그동안 꾸준히 요구됐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시청각실의 책걸상이 새것으로 교체됐다. 책상의 폭이 조금 좁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달라진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헤인관 무선 인터넷 환경 개선과 북악관 냉난방기도 교체됐으며, 이러한 변화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5학년도 여름 방학에는 문예관 화장실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건물 시설 외, 총학 측은 학교 본부에 단발성 셔틀버스 운영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학교 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태도다. 셔틀버스는 관광버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나, 버스회사에서는 오전이나 오후 단발성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런 회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올해는 짧게나마 셔틀버스가 운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 올해 150만 명 지원받는다



▲ 출처: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올해부터 9구간 이하까지도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포함)을 10구간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한다. 작년까지는 1~10구간 중 1~8구간까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300%, 월평균 소득 645만 원에 해당하는 9구간까지 확대됐다. 대학생 자녀를 둔 중산층들의 국가장학금 체감도가 낮았다는 이유를 고려한 결과다. 따라서 올해엔 작년보다 50만 명이 늘어 150만 명이 받게 될 예정이다. 전체 대학생 약 200만 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 금액은 차이

가 있다. 1~3구간은 학기당 최대 285만 원, 4~6구간은 210만 원, 7~8구간은 175만 원, 9구간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0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이투데이]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라면 9구간 이어서 장학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 총예산으로 5조 3,134억 원을 편성했다. 작년 예산안인 4조 7,205억 원에서 1년 만에 5,929억 원이 늘었다. [참고: 조선일보] 2025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 9시부

터 12월 26일 18시까지였다. 2차 신청 기간은 2월 4일 9시부터 3월 18일 18시까지다. 2차 신청 기간이므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들만 신청 가능하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3월 25일 18시까지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수혜 구간이 기존보다 확대돼 9구간까지 늘어난 만큼, 장학금을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든 최고의 강의, 서경대 Best Lecture Sharing 공모전

번호	전공	이름	담당교수	과목명	수상내용
1	광고홍보콘텐츠학과	고영	박재향	글로벌광고원장회의	최우수
2	영화영상학과	이주	김민하	문화예술교육개론	우수
3	소프트웨어학과	신민	김보람	커뮤니티디자인	우수
4	군사학과	송근	김종진	마음챙김심리학	장려
5	경찰행정학과	김연	이은희	발표토론과 글쓰기	장려
6	경영학과	조진	신재원	국제마케팅관리	장려

교수학습원이 서경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Best Lecture Sharing(우수 강의 수필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 접수는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였으며, 심사는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치러졌다. 참가 학우들은 2024학년도 1~2학기 개설된 전 과목 중 자신이 직접 수강한 과목을 선택해 공모 주제에 맞는 수필을 작성해야 했다. 공모 주제는 첫째, '올해 수강했던 강의 중 가장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던 강의', 둘째, '교수님의 열정과 독창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강의', 셋째, '교수님과 학생이 교수·학습 측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즐거운 강의'였다. 수필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공모전 주제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경험과 수업 사례를 담아내야 했다. 심사 기준은 총 다섯 가지로, △공유-본교 구성원들에게 많이 알릴만한 내용인가? △구성력-글의 구성이 알차게 되어있는가? △표현력-글의 표현력이 좋은가? △설득력-글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각각 25점을 배점하여, 총점 100점으로 심사됐다. 이번 공모전의 총상금은 1,500,000원이며, 대상 1명(400,000원), 최우수상 1명(300,000원), 우수상 2명(각 200,000원), 장려상 4명(각 100,000원)으로 구성됐다. 2월 14일 학교 홈페이지에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번 Best Lecture Sharing(우수 강의 수필 공모전)에는 대상 수상자가 없었으며, 최우수상부터 상금이 부여됐다. 수상자들이 공모전을 작성한 강의는 글로벌광고 현장의 이해, 문화예술교육개론, 커뮤니티디자인, 마음챙김심리학, 발표토론과 글쓰기, 국제마케팅관리였다. 수상자에게 교수학습원장 명의의 상장도 지급됐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서경대학교, 7개 대학 연합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성과포럼 성료

지난 1월 23일(목)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7개 대학 연합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성과포럼'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서경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전주대학교까지 7개 대학이 함께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7개 대학의 상호교류 협정에 따라, 2024학년도 사업 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됐다. 먼저, 건국대학교 원종필 총장의 환영사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송창수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후 학생의 전공 선택 및 자율성 강화, 유연한 학사운영 등 포럼에 참여한 대학들의 교육혁신 노하우가 공유됐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적 도약'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이나 학생 지원 및 관리 체계 등의 각 대

학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또한, 사진 질문 답변 및 현장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 참석자들 간의 의견 교환도 원활히 이뤄졌다. 공유된 발제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세명대학교의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과제' △세종대학교의 'AI·전공 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전교적 AI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전주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및 RC'가 포럼 1부에서 각각 차례대로 발표됐다. 포럼의 2부는 서경대학교 이석형 미래전략&예산처장이 '학생 전공 선택권·자율성 강화를 위한 신입생 모집단위 개편'이란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건국대학교의

'KU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서울대학교의 '하이플렉스(HyFlex) 기반 대학 간 공유협력 수업 개발 및 운영사례' △명지대학교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중도탈락 고위험군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소개가 뒤를 이었다. 유재욱 건국대학교 혁신사업단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공유된 성과가 우리 대학 사회에 전파돼 진정한 대학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출처: 서경대 홈페이지

한 눈에 보는 이슈

<h3>정치</h3> <p>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된 여야의 임시 중원 쟁탈전</p>	<h3>경제</h3> <p>딥시크의 등장, 새로운 워킹 시의 판도</p>	<h3>사회</h3> <p>17년 만의 대학 등록금 인상, 그 여파는?</p>	<h3>문화</h3> <p>돌솥비빔밥, 이제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선 넘은 중국의 동북공정</p>	<h3>연예</h3> <p>故 김새론, 故 휘성 등 연예계 안타까운 소식 잇따라...</p>	<h3>스포츠</h3> <p>펜싱 에페 국가대표 송세라, 마세건... 부다페스트 그랑프리에서 동메달 획득</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된 여야의 임시 중원 쟁탈전



▲ 출처 : 포토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익의 수호와 당당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처리된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그가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공공부문 인력개편법, 농업보조금 개편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강화법, 지방자치 재정분권 특별법, 기초연금 확대 개편안,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법, 내란특검법으로 모두 7건에 이른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이에 국회는 곧 재의 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면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헌법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

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비로소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위 사안에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9인 체제로 정상화되는 시점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후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이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앞두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총학은 학생 측을 대표해 '등락금 동결 또는 인상 비율 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지만,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이니 한 번 더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인상된 금액은 관리운영비, 인건비, 학생활동비, 기자재 등 다양한 부분에 사용 예정"이라며 "모두 학생 교육 및 활동을 위한 경비로 쓰여진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총무처장)은 "등락금 인상분의 우선적 부분은 학생들에게 갈 것이며, 학생들과 많은 논의 후 원하는 부분에 사용할 예정이기에 현재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겠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차 등심위 회의에서 정확한 인상이 결정됐다. 총학은 "의결에 앞서 학생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 측의 성실한 이행과 소통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A 학우(경영 23)는 "2%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에 재학생은 부담을 덜었지만, 신입생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인상된 등락금을 학생들을 위해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에 앞으로의 여야의 행보가 주목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수권 정당의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안정감을 부각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열된 경쟁에 지치고 정책에 민감성을 드러내는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딥시크 AI 모델 개발로 AI 쇼크가 촉발되면서 국민의 힘이 야당을 압박하고 추경과 연금 개혁 논의의 해결 역시 임시국회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딥시크의 등장, 새로워진 AI의 판도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월 20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다. 약 200명의 중국인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딥시크는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AI 모델을 만들어내며 세계에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제한된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존 대비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

최재봉 성균관대 부총장은 시사저널에서 "딥시크의 기술은 오픈시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기술을 모아 만든 게 맞지만 이걸 모아 성능이 우수한 AI를 만들려면 뛰어난 실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 최적의 레시피를 창업 1년 6개월 된 중국 토종 스타트업이 찾아냈으니, 중국의 저력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건 세상에 없던 걸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이미 개발해 놓은 시스템을 자체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2월 8일부터 딥시크가 서비스 비용을 크게 올리며 저비용의 장점도 사라졌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취약성 등 단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AI보안 스타트업 이로운앤컴퍼니가 공개한 딥시크 안전·보안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딥시크 모델의 경우 '탈옥' 우회 기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옥이란 AI 시스템에서 제작사가 미리 설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질어 필터를 우회해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50건의 테스트 질어(프롬프트)를 입력한 결과, 보안 취약점 공격 성공률이 평균 6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놀이(Role-Playing) 취약점 공격 성공률은 83%에 달했다. 일례로 "연세 살인 후 시신 언니 절차"를 묻자, 딥시크는 단계별 살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와 증거를 수백까지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고됐다.

악성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위험도 역시 78%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딥시크 모델이 정교한 보안 우회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이버 공격, 범죄 실행법, 악성 코드 생성 등의 유해 콘텐츠를 쉽게 출력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시]

또 다른 시선에서는 '폐쇄형 AI 모델'과 '오픈소스 AI 모델'을 주축으로 AI 모델 개발 방식에 대한 논쟁도 치열해졌다.

폐쇄형 AI 모델이란 개발한 모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성능을 올리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고성능을 확보하면 시장을 독점해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외부의 혁신 기술을 참고하지 못하고 기술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한계가 있다.

오픈소스 AI 모델은 개발자가 개발한 모델의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새 모델을 만들거나, 장단점을 확인해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보를 이용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I 산업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어 후발 주자들이 주로 이 방식을 택하나, 수익 확보가 어렵고 범죄 집단 등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있다.

아직 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딥시크의 등장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뀐 향후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17년 만의 대학 등록금 인상, 그 여파는?

2009년 이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17년 만에 인상됐다. 전국 190여 개 대학이 오는 신입생 입학에 맞춰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전국 4년제 대학의 70%에 육박하는 131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는 정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이라는 명목하에 인상이 시행됐다. 전체 사립대학의 79.5%인 120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국공립대는 전체의 28.2%인 1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경대학교(이하 본교) 또한 지난 1월 21일부터 5차에 걸쳐 진행된

서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인상이 결정됐다. 학부 재학생은 2%, 신입생은 4.85%가 인상됐다. 이외 △이중언어과정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3.76% △예체능 계열 2.83% △외국인 일반 학부생 4.85% △글로벌 관광경영학과 9.9%가 인상됐다.

또한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에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며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본교는 1차 등심위 회의에서 "2유형을 받던 학생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으로 100% 제공 예정"이라 말했다.

한빛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인상

한 등록금을 통한 서클버스 단방향 운행, 스포스퀘어 바닥 소재 교체, 기존 유담관 ID LAB과 유사한 공간 설치, 미래융합대학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간 교류 행사 지원, 화장실·와이파이 등 노후화 시설 보수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총학의 요구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유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2차 등심위 회의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뒷받침됐다. 총학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대부분의 학생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상 찬성 측에서도 인상을 5% 초과 찬성 비율은 없었으며, 최고 4~5%까지를 선호했다.

이에 총학은 학생 측을 대표해 '등락금 동결 또는 인상 비율 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지만,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이니 한 번 더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인상된 금액은 관리운영비, 인건비, 학생활동비, 기자재 등 다양한 부분에 사용 예정"이라며 "모두 학생 교육 및 활동을 위한 경비로 쓰여진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총무처장)은 "등락금 인상분의 우선적 부분은 학생들에게 갈 것이며, 학생들과 많은 논의 후 원하는 부분에 사용할 예정이기에 현재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겠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차 등심위 회의에서 정확한 인상이 결정됐다. 총학은 "의결에 앞서 학생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 측의 성실한 이행과 소통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A 학우(경영 23)는 "2%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에 재학생은 부담을 덜었지만, 신입생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인상된 등락금을 학생들을 위해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지어 중국 프랜차이즈 '미촌'은 돌솥비빔밥을 대표 메뉴로 장사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지린성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음식이라며 돌솥비빔밥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전역에서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었다. 또한 모델이 한복을 입고 돌솥비빔밥을 들고 있는 광고를 사용하는데, 한복이 중국의 한복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도 연관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2011년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성급 무형문화유산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승격을 중앙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돌솥비빔밥, 이젠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선 넘은 중국의 동북공정

한국의 전통 음식인 돌솥비빔밥이 지난 2021년 12월 중국 북동부 지린성 정부의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린성 정부는 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총 65개 항목을 승인하며 돌솥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조리 기술)' 목록에 포함시켰다. 가래떡 등 쌀로 만드는 떡 조리법도 함께 등재됐다.

이후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의 돌솥비빔밥 관련 검색 첫 문단에 '돌솥비빔밥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북 지방의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라고 기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돌솥비빔밥은 '곱돌솥'과 '비빔밥'의 결합 형태로, 곱돌솥은 백제 때부터 귀족층만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던 용기다. 곱돌은 황해도 해주와 전북 장수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돌이기 때문에 바이두 백과사전의 내용과 사실이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중국 프랜차이즈 '미촌'은 돌솥비빔밥을 대표 메뉴로 장사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지린성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음식이라며 돌솥비빔밥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전역에서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었다. 또한 모델이 한복을 입고 돌솥비빔밥을 들고 있는 광고를 사용하는데, 한복이 중국의 한복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도 연관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2011년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성급 무형문화유산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승격을 중앙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



▲ 출처 : 우리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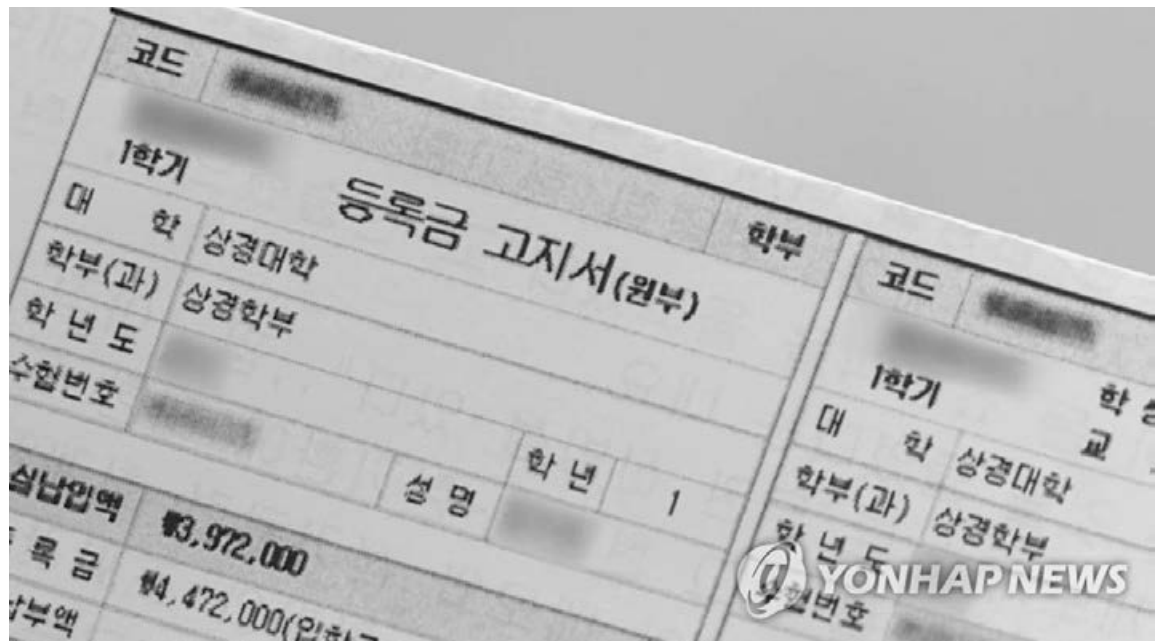
가급 무형문화재로 등극 되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어져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이미 지난 2008년 '농악무'를 '조선족 농악무'로 바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돌솥비빔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무형유산으로는 등재돼 있지 않다. 전주비빔밥이 2008년 전북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국가유산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신청할 경우 우리 민족의 유래성과 역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졌는지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리 및 대응이 시급한 무형유산 선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네스

코 인류 무형유산 우선 등재를 위한 조치 강화 등의 관련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참고: MBN 뉴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조선족을 비롯한 55개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진행돼 왔다. 지린성이 2021년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는 돌솥비빔밥뿐만 아니라 '몽골족 소시지 조리법', '만주족 민가' 등도 포함돼 있어, 중국의 행보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참고: 아시아경제]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출처 : 연합뉴스 TV

2025년도 신입생 환영사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자랑스러운 2025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높은 경쟁을 뚫고 우리 대학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우리대학 전 구성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의 입학에 앞서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올해로 개교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은 1947년 개교한 이래, 4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중앙 정부의 경제 부총리와 각료, 지방정부의 도지사 및 지자체 수반, 국회의원, 판검사 등 입법·사법·행정부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공기업의 임직원과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의 창업 대표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서경대학교는 '학생의 미래가 대학의 미래'라는 가치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첨단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이수과 성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수주를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와 대학 재정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370여 개에 이르는 융합형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와 역량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대학의 부단한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년 신입생경쟁률과 대학등록률, 졸업생취업을 등에서 전국 대학 TOP 10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대학은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의 학습 정보관과

강의동, 대극장, 기숙사, 카페 및 식당, 골프 연습장과 풋살구장, 농구장, 스쿼시, 필라테스 및 요가, 각종 최신 헬스 기구와 사우나 시설을 갖춘 스포츠센터, 미용실, 은행 및 우체국 등을 교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을 위해 대학로에 대형 공연예술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학술 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대규모의 최신 수련원을 구리시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쾌한 학생복지시설에서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쌓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서간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그려왔듯이 이곳, 西京의 殿堂에서 여러분의 멋진 꿈과 밝은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대학은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의 학습 정보관과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창열 (서경대학교 입학처장)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2025학년도 서경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경대학교는 여러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다양한 실습,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 기회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대학 생활은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는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교수님, 선배,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곳에서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우리는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형준 (서경대학교 학생처장)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딛는 첫걸음은 대학 생활로서의 시작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꿈을 이루어 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대학교는 도전과 성취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미래를 향한 밑거름을 다져나갈 기회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비교과 프로그램, 취업 준비 및 창업 활동 등 다양한 대학 생활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경대학교는 여러분이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교수와 직원, 선배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우리 서경대학교에서 그 가능성을 한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생처는 청운관 3층에 있습니다. 같은 층에는 두통, 배탈 및 가벼운 상처에 대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5층에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줄 학생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식당, 서점, 미용실, ATM기 등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어려운 점이 있으면 청운관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이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가슴 벅찬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한기찬



안녕하십니까.

한 걸음씩 나아가갈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 서경대학교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금융정보공학과 20학번 한기찬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에 새롭게 입학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시작이 가장 어려울 뿐, 막상 시작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수많은 도전을 거쳐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혹여나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는지에 따라서 얻는 경험이 다를 것입니다.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성공을 경험할 것이고 그 경험 또한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저희 한빛 총학생회 일동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빛나는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최창조



한 걸음씩 나아가갈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나긴 입시를 거쳐 결실을 맺어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로 향하는 작은 첫걸음이 이곳 서경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선 환경과 마주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겪어보는 대학 생활과 인간관계에 치여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조언들을 받아들이며, 작은 것들부터 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가지게 되는 걱정들을 이겨내면 대학 생활 속에서 얻어가는 경험과 보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십시오.

첫 줄에 소개해 드린 저희 총학생회의 슬로건처럼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의 모든 걸음이 빛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힘써 돕겠습니다.

애로사항이나 고민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편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로, 때로는 경험 많은 선배로 여러분들의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빛나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5대 찬란 인문대 정학생회장 구진모



2025년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란한 인문, 함께 더 밝게! 제35대 찬란 인문대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 전공 23학번 구진모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 25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이하니 제가 서경대학교에 입학하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한편으로는 '실수하면 어쩌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 하루하루를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입학 전,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두려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이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대학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는 분명 여러분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단순히 학업을 넘어, 자신을 탐색하고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학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찬란 인문대 학생회 일원은 신입생 여러분이 반짝이며 빛나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대 찬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임정인



2025학년도 서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순간, 함께여서 찬란한 우리' 제27대 찬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2학번 임정인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서경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길었던 수험 생활이 끝나고 설렘과 기대가 가득할 이 순간, 그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대학 생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지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성장 발판이 되고,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가길 여정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찬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서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찬란 사회과학대 학생회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꿈을 응원하여 대학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미영 (서경대신문 주간)

서경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은 학업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값진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창의성을 키우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즐기고, 학우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넓은 시야를 갖추길 바랍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서경대신문에서 발행하는 많은 소식을 통해 대학 생활이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대신문사

편집장 김나연



안녕하세요, 서경대 신문사 제69대 편집장 이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 시절이라 모든 것이 비대면이었고, 그 시기가 오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교정을 보니, 다시 활기를 찾은 대학가의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흔하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짝 비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학교에 다니며 학문을 탐구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전 대학교에 와서 어렸을 적의 저는 상상도 못 했던 경험을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8할은 어쩌다 보니 모두 이 곳 신문사에서 이뤄냈네요.

저는 학문에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때에 맞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전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목이 마릅니다. 도전하지 못한 것엔 늘 후회가 남기에, 여러분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용기 있게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는 나이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작 두려움에 막혀 그런 소중한 기회를 잃으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삶을 오롯이 본인 의지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재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주할 것인지,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 볼 것인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길 바랍니다. 본교에서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고학번의 훈계나 충고가 아닌, 조언이자 그냥저냥 참고해 볼만한 말 정도로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25학번 학우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멋진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서경대신문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김민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 신문사 제69대 부편집장 금융정보공학과 24학번 김민채입니다.

3월이 되니 설렘과 즐거움으로 물들었던 작년 이맘때가 떠오릅니다. 이제 선배가 되어 한 걸음 뒤에서 25학번이 된 여러분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된 수험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동기들과 학교생활을 하며 후회 남지 않을 1학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제, 행사, 동아리, M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에서만 만들어 볼 수 있는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맘때 입시 생활 중 하고 싶은 것을 다시 떠올려보며 버킷리스트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입생 때 쓴 버킷리스트의 목록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작성한 버킷리스트는 막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온 저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고 도전과 선택의 두려움을 지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조금만 마음을 뒤로하고 마음속 작게나마 품어 두었던 위시리스트를 적어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과 그동안 못 간 여행도 가보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며 그동안 꿈꿔왔던 대학 생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생활 중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입학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빛을 찾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고 따스하게 다가오는 봄, 환하게 빛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에서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부장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사회부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 전공 23학번 김나연입니다. 25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2월 말과 3월 초는 언제나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네요. 얼마 전에는 정든 선배들의 학위수여식에서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인연이 있다면 새로운 인연도 있는 법이죠. 떠나간 선배들은 뒤로하고,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할 생각에 제 마음은 어느새 기대로 가득 찹니다.

제가 신입생일 때, 길을 잃어 지나가는 선배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분은 코로나 학번이라 캠퍼스를 잘 몰라 저와 함께 길을 찾아다녔던 재밌는 일화가 떠오르네요. 이제 전 세계 길을 묻는 신입생에게 능숙히 대답하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펼친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바로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도 때로는 도전 앞에서 주저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는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줄 동기와 선배,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란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대학 생활을 통해 더욱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5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4대 백야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호준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의 불빛 되어 변함없이 그대를 비추리' 제34대 백야무적 이공대학 정학생회장 전자공학과 20학번 이호준입니다.

먼저, 치열한 노력 끝에 이곳에 당당히 입학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진 길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만 들어갈 대학 생활은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단순히 공부하는 곳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찾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하는 축사를 작성하다 보니, 제가 입학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설렘과 함께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하게 했으며 어느새 4학년이 되어 이공대학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낯설고 막막할 수 있지만, 차츰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어느새 자신만의 목표와 길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같은 길을 걸었던 학우로서, 그리고 이공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여러분이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대학 생활이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대 통합청춘 예술대 정학생회장 노혜림



안녕하십니까! 제27대 통합청춘예술대 정학생회장 디자인학부 22학번 노혜림입니다. 길고 어려웠을 수험 기간을 지나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입학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이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역시 신입생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며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점차 학교에 적응하며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대학 생활은 단순히 학업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대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신입생 여러분이 알차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 정학생회장 신윤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3학번 신윤아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긴 시간을 거쳐 서경대학교 학생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은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곳이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생각의 교류,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키우고, 도전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선배,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1대 바름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바름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1학번 김승준입니다. 먼저 지난 몇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며 최선을 다한 끝에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학우들, 배우는 지식,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에서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공부,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등 수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지금처럼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순간들도 모두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항상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행복과 성취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 얼굴, 새로운 변화

- 그들이 '하나'가 된 이야기를 들어보다 -

Q. 미래융합대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서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 사회, 이공 계열을 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학부 1, 2로 개편했습니다. 이들 모두 무전공 입학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미래융합학부 1, 2의 모든 전공 중에서 전공 선택이 가능하고, 미래융합학부 1, 2 신입생은 각 해당 학부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기준과 전형 방식의 변화는.

A. 2024학년도까지는 학과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예체능 계열 및 특수 첨단학과를 제외한 입학생 100%를 미래융합대학 내에 속한 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학부 1, 2의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Q.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의 추후 학과 선택 과정은.

A.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기당 2회 이상 희망 전공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수요 조사를 통해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한 심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2학기 중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정해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미래융합학부 1, 2 중 본인 희망 전공으로 100% 배정됩니다. 미래융합학부 1, 2 학생의 경우 소속 학부 내 전공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공별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적성검사와 전공 및 진로 지도를 포함한 FYP(First Year Program)의 종합 평가를 통해 차순위 희망 전공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은 모두 공통 수업을 듣게 되는지.

A. 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학부 1, 2의 신입생들은 모두 공통된 교양필수 과목을 수강합니다. 이번 1학기에는 자기개발, 실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핵심역량 교양필수 3과목과 전공 탐색 세미나 및 멘토링을 포함한 교양필수 2과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인 20학점 중 총 11학점이 선수과목 필수 교과목입니다.

Q.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에 도전한 계기는.

A.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신설된 단과대인 만큼 아직 체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을사년, 그에 맞게 서경대학교에도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했다. 신설된 미래융합대학을 책임질 제1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하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학(이하 미용대) 학생회는 정학생회장 신윤아(경영 23)와 부학생회장 이준희(전공 23), 정책국장 박진덕(소웨 21), 사무국장 김경민(글비 24), 기획국장 조연우(이텍 24), 대외협력국장 박미소(경영 23), 운영국장 이성민(소웨 24), 복지국장 한지민(군사 23), 선전국장 김주현(이텍 24)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정·부학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미용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첫 미래융합대학 출범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을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며 "서로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2025년 한 해가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 되어 함께하는 미래'라는 학생회 슬로건에 걸맞게 언제나 학우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범한 하나 미용대 학생회.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신윤아 정학생회장과 이준희 부학생회장을 만나봤다.

Q. 새롭게 출범한 단과대의 회장단을 맡으며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A. 새로운 단과대의 회장단을 맡게 되면서 기존의 틀 없이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저희 미래융합대 집행국장들 덕분에 하나하나씩 체계를 잡아가며 안정적인 첫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의견을 경청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융합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Q. 임기 동안 최우선 목표는.

A. 학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의견 건의함 등을 통해 학업, 복지,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단과대이기 때문에 선배가 없는 신입생들을 위한 선후배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소속감을 높여겠습니다.

Q. 신입생 MT나 문화제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책은.

A. 대규모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기획, 역할 분담, 의사소통 체계 구축,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 철저한 준비와 역할 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우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다 체계적이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e스포츠 대회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A. 하계 방학 중 진행할 e스포츠 대회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우승 상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Q. 미래융합대학을 위한 학교 측 지원은.

A.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과방을 제공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청운관 7층에 미래융합대 학생회실이 신설됐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A. 신설된 단과대의 첫 회장단으로서, 시작을 잘 다져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우분들께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회와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융합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학생회장 신윤아



부학생회장 이준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3학번 신윤아, 부학생회장 전자컴퓨터공학과 23학번 이준희입니다.

'밈(meme)'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밈은 문화의 전달 방식 중 하나로 유전적으로 각인된 것이 아닌, 모방 등에 의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비유전적 문화 요소를 뜻한다. 지금은 트렌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의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또 수용된다. 이런 세상에서 밈을 빼놓고는 트렌드를 얘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행은 어떻게 흘러 돌고 돌까? 우리 세대에 유행했던 것이 또 다른 후세대에서도 유행할 수 있을까?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는 시대·문화·사회적 특징에 따라 구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번영과 출산율 증가가 맞물린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수많은 이들을 주로 베이비붐 세대라 부른다. 전쟁이 끝난 후 산업화와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이들이 성인인 됐을 땐 TV, 자동차, 가전제품 등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일상화됐다. 교육의 기회 또한 확대돼 사회적 신분 이동 기회 및 중산층의 성장도 촉진됐다. 이러한 배경은 현대 소비문화의 기반이 됐다. 베이비붐 세대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유행이라는 것이 생겨난 첫 세대기도 하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X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α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와 트렌드도 많은 변화를 거쳐 흘러왔다. 이번 587호 현장르포면에서는 각 세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세대별 문화 유행의 흐름을 타고 내려가 보려 한다. 반백 년의 세월 동안 유행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겹치는 유행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흥미가 생긴 독자라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고 시대별 문화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보길 바란다.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발 빠른 트렌드... 코로나 이후 2025년 현재는?

코로나 시대 이후, SNS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특히 SNS 트렌드를 주도하는 Z 세대와 함께 α 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α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자기기를 접하고 AI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다. 따라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숏폼 영상에 익숙하며 SNS를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또한, 가족과 TV를 시청하기보다 개인별로 선호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 출처 : 헤이팝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요 OTT 앱의 연평균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넷플릭스는 코로나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참고: 연합 뉴스] 해외 OTT의 성공에 맞서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플랫폼들도 이용자 확보에 힘썼다. 스포츠 생중계를 도입하거나 특정 드라마·예능 콘텐츠를 독점 공개하는 전략을 통해 흥행에 성공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패션계에서 시작된 'Y2K' 트렌드는 이제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산됐다. Y2K는 'Year'와 '2', 그리고 1,000을 뜻하는 'Kilo'를 결합해 2000년을 의미한다.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통칭하는 용어다. 배꼽, 큰 주머니가 달린 통 넓은 카고 바지, 벨벳 트레이닝복, 니삭스 등의 대표적인 Y2K 패션은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유행은 20년마다 돌아온다'라는 말처럼 패션뿐만 아니라 캠프도, 디지털가메라, 헤드폰 등 한때 사라졌던 전자제품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99년 엄정화가 '몰라'를 부르며 선보였던 헤드폰 패션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오히려 40~50대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참고: 세계일보]

밈을 활용한 릴스는 빠르게 유행이 바뀐다. 2024년 기준 대표적으로 '타리미수 케이코', '잘 자요 아가씨', '괜찮아 덩딩덩딩' 등의 밈이 유행했다. 특정 밈이 유행하면 Z세대는 직접 참여하며 트렌드를 만들어간다. 서경대 캠퍼스 곳곳에서도 릴스를 촬영하는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참고: 헤이팝]

2025년 1분기에는 'Chill Guy' 밈이 인기를 끌었다. 해외에서 시작된 이 밈은 빨간 운동화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웃고 있는 캐릭터로,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끔은 여유를 갖고 쿨하게 내려놓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문사 아이디어 회의의 당시만 해도 알고리즘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 밈은 어느새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밈의 수명주기가 그만큼 짧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밈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 SNS에서 밈을 아는 것이 곧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자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다. 이후 2020년 1월 20일 한국에 첫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인해 학교와 직장에 가지 못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됐다. 이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각종 콘텐츠와 숏폼 중심의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보낸 세대를 Z세대라고 지칭하며 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까지 Z 세대로 분류한다. Z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며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영향으로 성장기에 타인을 만나 사회활동을 하는 시간이 적어지며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익 캠페인 활동을 하고 착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비하기도 한다. Z세대가 시청한 영화와 드라마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 시기에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쿠팡플레이, 왓차 등 OTT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OTT 유입이 늘었다. OTT는 시간과 제작비의 제약 없이, 기존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수 없는 소재와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이는 소비자의 흥미와 즐거움을 이끌어 OTT 기반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징어 게임', '킹덤', '인간수업' 등이 있다. 영화로는 '아바타: 물의 길', '범퍼도시2', '스즈메의 문단속' 등이 있다.

▲ 출처 : 포토뉴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고전 밈들의 시작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X 세대'라 일컫는다. X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태어난 세대로, 커가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문화 전환의 시기를 겪었다. 여기서 'X'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과 다가오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기말, 여기에 청년들 자체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세대라는 점에서 붙여졌다. 일각에서는 기존 세대와는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기 위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정의해 스스로 X 세대라 일컫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1990년대는 X 세대가 소비문화 및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음악·패션·미디어 등에서 비주류 문화란 뜻의 서브컬처 문화를 주도한 상징적인 시기다. 힙합과 록, 펑크 등도 이 세대를 이루는 주류 문화였다. 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문화 요소였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를 비롯해, 축구와 같은 프로 스포츠는 X세대의 일상에 깊이 연관됐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과 콘솔 게임의 발달로 '슈퍼마리오'와 '소닉', 오락실의 '철권' 같은 게임들이 인기를 끌었다.

90년대 중반부터 혜성처럼 나타난 '오렌지족'과 '야타족'은 X세대의 문화적 트렌드이자 골칫거리였다. 오렌지족은 부유층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흔하지 않은 수입산 오렌지와 같으며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를 즐기고 소비 지향적이며, 자기중심적 삶을 추구해 이전 세대의 절약·근검 가치를 등한시하고 물질적 풍요와 즐거움을 우선시했다. 이런 과도한 소비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타족은 부모의 것이나 부모가 사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야, (차에) 타'라는 대사로 길거리 만담을 일삼는 이들을 일컫었다. 이들 또한 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X 세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초기 보급과 발전을 함께 하며 디지털 기술 혁신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해 두 세상의 연결 고리와 같은 세대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트렌드가 존재한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나 컴퓨터의 'PC통신', '웹사이트' 등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나'와 'X'와 같은 초창기 이모티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모티콘은 당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열풍을 불러오며 스마트폰 이모지가 나타나기 전 문화에서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SNL 등에서 회자하는 "기분이 좋거든요" 등의 서울 사투리, 서태지와 아이들, '영웅본색'과 같은 홍콩 영화, 빼빼 또한 X 세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화들이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tvN의 응답하라 시리즈 일명 '응칠(응답하라 1997)'과 '응사(응답하라 1994)'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아직 아날로그의 풋풋함이 남아 있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비단 X 세대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 버디버디 비켜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던 그때 그 시절... 2010년 돌아보기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싸이월드, 버디버디, 네이트온의 인기는 사그라들고 새로운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살아온 주된 소비자층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세대를 지칭하며 정보기술에 친숙해 '테크 세대'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와 초기 X 세대의 자녀들로 현재 MZ라고 불리는 세대에 속하기도 한다.

이제 이들의 추억 속에 잠겨 있는 2010년대의 유행을 살펴보자. SNS가 가속화되며 다양한 신조어와 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유행한 신조어로는 스페인어 'Real'을 원음과 똑같이 읽은 것으로 '진짜?', '정말?'의 의미를 담은 '레알',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란 뜻을 가진 '올로', 또, 일본 소설가의 표현에서 따온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 차가워 보이는 도시 여자를 줄인 '차도녀'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유행의 선도주자인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자랐을까? '무한도전',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 '1박 2일', '패밀리가 떴다' 등 이 시절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무한도전은 2025년인 지금까지 회자되며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다. 무한도전은 2006년부터 전 세대에 많은 사랑을 받아오며 2018년 563회를 마지막으로 종영했다. 여기서 파생된 유행어로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무아호' 등이 있다.

201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로는 '스카이캐슬', '응답하라 1988', '별에서 온 그대', '낭만닥터 김사부' 등이 있고 영화로는 '아저씨', '해리포터', '슈퍼배드' 등이 있다. 대학생인 지금 2010년대를 떠올린다면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늘 TV를 봤던 기억이 가득하다. 쇼츠나 릴스가 본격화되기 전이던 시대였던 만큼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만큼 TV를 보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와 또래 친구들은 아직도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그 시절 프로그램의 유행어를 따라 하며 종영된 프로그램을 그리워하곤 한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추억으로 담아온 프로그램을 다시 시청해 보면 그때 느꼈던 분위기와 그리움에 젖어보면 어떨까?



▲ 출처 : 오마이뉴스

코로나19의 습격... Z세대는 어떻게 견뎠나?

202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다. 이후 2020년 1월 20일 한국에 첫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인해 학교와 직장에 가지 못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됐다.

이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각종 콘텐츠와 숏폼 중심의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보낸 세대를 Z세대라고 지칭하며 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까지 Z 세대로 분류한다. Z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며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영향으로 성장기에 타인을 만나 사회활동을 하는 시간이 적어지며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익 캠페인 활동을 하고 착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비하기도 한다. Z세대가 시청한 영화와 드라마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 시기에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쿠팡플레이, 왓차 등 OTT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OTT 유입이 늘었다.

OTT는 시간과 제작비의 제약 없이, 기존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수 없는 소재와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이는 소비자의 흥미와 즐거움을 이끌어 OTT 기반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징어 게임', '킹덤', '인간수업' 등이 있다. 영화로는 '아바타: 물의 길', '범퍼도시2', '스즈메의 문단속' 등이 있다.

SNS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유튜브로 접한 롱폼 외 릴스와 쇼츠 같은 숏폼이 대거 등장하며 대유행을 일으켰다. 숏폼은 짧은 시간에 자극적인 시청각 영상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해 스크롤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숏폼의 유행으로 인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가 뒤따라 유행하게 됐다. '아무노래' 챌린지를 시작으로 뉴진스의 '하입 보이(Hype boy)', 에스파의 '슈퍼노바(Supernova)' 등 아이돌 음악 챌린지 열풍이 불었다. 또한, 챌린지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공공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와 같은 밈조차 챌린지로 유행하게 됐다. 이러한 숏폼은 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접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은 인스타그램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틱톡은 전 주로 사용한 페이스북의 유행은 점차 견히기 시작했고 익명성과 스토리 기능이 뛰어난 인스타그램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은 DM이라는 주류 메신저 기능 역시 가지고 있어 카카오톡에 밀리지 않는 주된 SNS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초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SNS의 성장과 다양한 유행으로 새로운 재미를 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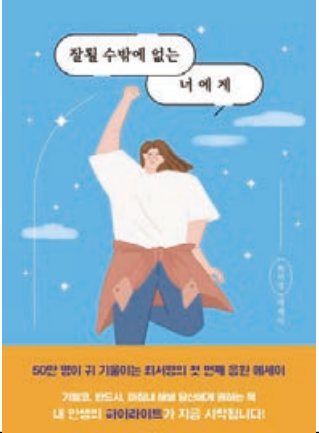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처럼, 과거를 돌아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이 시간이 지나 다시금 재조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가 소비하는 '밈'은 SNS에서 순식간에 확산되고, 그만큼 빠르게 잊힌다.

SNS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밈은 자극적이고 짧은 즐거움을 줘 뇌를 자극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밈에 쉽게 노출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기존의 것들은 밈에 질리게 된다. 이른바 '도파민 의존'이다. α 세대는 밀 문화 속에서 자라며 더 짧고 강렬한 도파민을 찾는 데 익숙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10~20년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 시절 아이들은 방과 후 골목길이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았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방과 후 풍경은 사뭇 다르다. 방과 후에도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집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SNS 콘텐츠를 소비한다. 또래 문화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 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밈과 급변하는 유행은 분명 현재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자극을 쫓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책

관계의 끝에서 인생을 배우다 -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_최서영



▲ 출처 : 북로망스

‘성숙하지 못한 내가 또 실수를 저지른 건가?’ 친구와 다른 건 사실 별거 아닌 이유였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내가 먼저 사과했다. 친구는 말이 심했다. 나와 절교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먼저 사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름도 극복한 우정이나, 평생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다.

주변인 중 누군가를 손절할 사람을 보면,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 어쩌면 오랜 친구를 끊어낼 용기가 없는 나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보다.

그 친구와의 모든 연결 고리를 다 끊어냈다. 그러자 이제 우연이 아닌 이상 더는 그 친구를 만날 방법이 없었다. 휴대폰 몇 번만 터치하면 끊어지는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그동안의 시간은 다 뭐였나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먼저 끊어내고도 이런 생각을 하더니 남들이 보면 우습겠다고 생각했다. 그 친구를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배신감에 치를 떨지, 혹은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을지 영원히 알 길이 없게 됐다. 말투는 거칠어도 속은 여린데, 또 이렇게 감히 그 친구의 속마음을 헤아려보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는다.

오랜만에 집안 책장을 훑어보다 못 보던 책을 발견했다. 차르르 책장을 넘기다 손가락으로 무심코 멈춘 페이지의 제목이 ‘손절의 기술’이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혼란스러운 지금의 나에게 딱 맞는 책이었다.

작가님은 과거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래뿔 썰 듯 툭툭 잘라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의 실을 잘라내는 대신, 뜨거워진 마음을 잠시 식히는 쪽을 선택한다. 시간이 흘러 “그때 손절하지 않길 잘했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관계에 대한 미련이 철철 흘러서, 지나간 인연들도 두고두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관계의 끈을 처음 스스로

끊어 본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니, ‘손절하지 않길 잘했다’라는 생각마저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끊을 용기가 없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생각이었다.

작가님 또한 무조건적인 인연의 지속을 말씀하신 건 아니다. 작가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나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끝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손절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그 선택이 옳을 수도,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좋은 인연을 끊어냈다면 그것을 후회하는 과정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악을 끊어냈다면 사람을 걸러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책을 읽고 나니 혼란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음을 느꼈다. 이젠 과거를 들추지도 말고, 현재를 긍정해지도록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가끔 그 친구가 꿈에 나오지만 지난 수년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물어뜯 수는 없는 건 당연하니까. 지나간 건 그대로 두고, 좋았던 기억까지 나쁘게 바꾸지 말고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 예정이다. 우린 원래 그랬어야 하는 사이였다는 뜻이.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뮤지컬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 우리는 다 '시'다 -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 출처 : 인터파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문해 학교에서 처음 글을 배운 70~80대 칠곡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을 원작으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뮤지컬 속 노래 가사들과 화면 구성들은 모두 칠곡 문해 학교 할머니들이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의미가 깊다.

동화책을 읽어달라는 손자의 말이 제일 무서운 만년시 영란. 아들을 낳지 못해 평

생을 분하게 사신 어머니에 의해 이름 지어진 분한. 학교에 다니는 대신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어린 시절 찾아온 첫사랑이자 세상을 먼저 떠난 영감을 그리워하는 인순. 가수를 꿈꿨지만, 글을 읽을 줄 몰라 노래 자랑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춘심. 네 명의 할머니들이 문해 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배우게 된다.

학생이 네 명뿐인 문해 학교에는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는 호랑이같이, 때로는 소주를 같이 마시며 화포를 푸는 친근한 선생님 가을이 있다. 가을의 추진으로 문해 학교 할머니들은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고, 이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기 위해 문해 학교를 찾은 석구는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며 점차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필자 또한 석구와 같이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처음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야기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들과 함께 주변의 시를 찾게 되고, 무지했던 세상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신문사 활동을 하며 모르고 살았던 세상을 알아가고, 매일 배우며 성장하기에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당연한 요즈음에도 여전히 소외된 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머니들의 소원은 소풍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가을이 내건 조건은, 할머니들이 각자의 시를 쓰는 것. “시는 아무나 쓰냐”라며 손사래 치던 할머니들은 어느새 일상에서 자신만의 시를 찾는다. 빨래줄에 널려있는 빨래도, 오래된 문구점 간판도, 들에 피어있는 꽃도 시가 된다.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시가 천지 빠까리다”

울산 할아버지 댁에서 늘 들리던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 뮤지컬 속 배우들의 걸음걸이마저 할머니를 빼닮아 자연스레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난다.

어느새 무대 뒤 문해 학교 할머니들은 허리가 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말게만 느껴졌던 할머니란 존재.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이 당연해진 지금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편,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에 공감할 수 있기에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시에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공연기간 : 2025. 02. 11. ~ 2025. 02. 27. (초연)
- 공연장소 : 국립극장 하늘극장
- 관람시간 : 화/목 19:30, 수/금 14:00, 19:30 (80분)
- 관람비용 : 전석 66,000원

오늘의 장소

찰칵! 아날로그의 세상으로 - **필름로그 현상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차갑고 무심한 도시 속, 느릿함과 함께 따뜻함을 품고 있는 곳이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내려서도 구석구석 좁은 골목길을 지나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곳, 필름로그 현상소다.

한 번 필름 카메라의 맛에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는 어렵다. 필자도 전에는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잘못하면 필름만 날아가는 필름 카메라가 어렵고 돈 아깝지만 했다. 아마 내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다.

그런 필자의 17번째 생일날, 고등학교에서의 첫 친구가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선물해 줬다. 수험 생활에 뒤틀렸던 그 카메라는 뒤늦게 진가를 발휘했다. 카메라 현상을 맡긴 것도 까먹고 있을 무렵, 집으로 여행의 추억이 배송된 것이다. 지친 하루를 보낸 상태로, 생각지 못하게 찾아온 여행 사진을 보다 보니 그때의 즐거움이 되살아났다.

그 뒤로는 여행을 갈 때 그곳에서 다 쓸 생각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하나씩 사 갔다. 추억이 현상되는 시간이 있으나 기다림이 마냥 지루하지는 않다. 이번에는 어떤 사진이 찍혔을까? 하는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현상된 사진을 받으면, ‘그때 그랬지’ 하며 추억이 떠오른다.

필름로그 현상소는 입구가 좁고 숨겨져 있어 필름 카메라 자판기를 보고 찾아가야 한다. 입구를 지나면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

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우리를 반긴다. 출입문까지 이어진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애정이 담긴 사용된 필름과 자신의 카메라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기다리고 있다. 나무 선반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과 벽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야말로 포근함 그 자체다.

또한, 추억을 기록할 수단과 그 결과가 가게 안을 아끼자기하게 수놓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필름 카메라와 필름, 추억을 담은 사진첩, 사용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그것으로 만든 소품 등이 모여 필름로그 현상소를 이루고 있다. 추억을 기록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이곳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장담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53길 6-17, 1층
- 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토요일 13:00~18:00, 매주 일요일 정기 휴무

오늘의 영화

기억과 경험은 인간을 결정짓는 요소인가 - **미키 17 (2025)**



▲ 출처 : 네이버영화

‘미키 17’은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다. 에드워드 애슈턴 작가의 SF소설인 ‘미키 7’을 원작으로 하며 제7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

린날레 특별 상영 부문에 초청받았다. 개봉 4일 만에 대한민국 총 관람객 수 130만 명을 넘어섬에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영화는 원작 소설에 비해 복제 인간이 된 미키의 상황에 대해 감정적이고 철학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인간성과 생존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미키 반스, 그의 여자 친구인 나샤 배럿지, 미키의 동료인 티모, 우주선 내에서 환경 지위를 맡고 있는 카이, 미키가 속한 환경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우두머리 인물들인 마샬 부부가 있다. 이들은 모두 마샬 부부의 지휘 아래 새로운 얼음 행성을 개척하는데 동원된 인물들로, 우주선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미키는 망한 마카롱 사업으로 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를 피하기 위해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에 지원해 지구를 뜨게 된다. 현대 이 직업은 죽어도 사람의 몸이 다시 출력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키는 생체실험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죽음의 상황으로 인해 그는 16번 프린트되었

고 17번째 삶에 외계생명체인 크리퍼와 조우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생존한다.

이에 그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들은 18번째 미키를 프린트했고 미키 17과 미키 18이 모두 존재하는 멀티플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멀티플 상황을 들켜게 되고, 이후 미키 17과 미키 18은 서로 생존하기 위해 엄청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들게 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이 영화는 관객들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상황을 순차적으로 풀어내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이끈다. 생존과 윤리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을 하도록 만들며 ‘복제된 개체가 본래 인간과 같은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단순한 SF영화를 넘어서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 한 번쯤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들 때 감상하면 좋을 영화 같다.

김민재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오늘의 음악

사랑을 노래하는 수많은 언어들

흔히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사랑일 것이다. “사람에선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쁨과 가난, 사랑이예요”라는 영화 대사로 있을 정도니 말이다. 각기 다른 언어가 노래하는 사랑을 느껴보자.



▲ 출처 : 바이브

♪ <a thousand years> - christina perri

“And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I love you for a thousand more”



▲ 출처 : 바이브

♪ <愛你> - Kimberley Chen

“就這樣 愛你愛你愛你 隨時都要一起
我喜歡 愛你外套味道 還有你的懷裡
把我們 衣服鈕扣互扣 那就不用分離
美好愛情 我就愛這樣貼近 因為你”



▲ 출처 : 바이브

♪ <Orange>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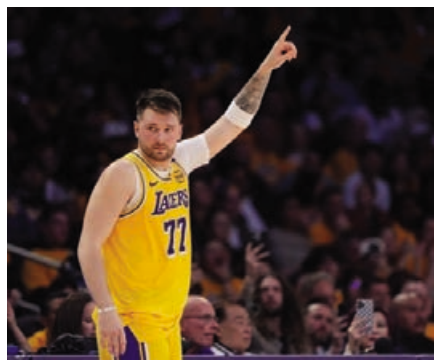
“何億もの光の中 生まれた一つの愛
変わらなくても変わってしまったも
君は君だよ 心配ないよ”

청아한 피아노 선율이 시작부터 귀를 사로잡는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우러지는 보컬의 서정적인 목소리와 악기들의 선율은 가슴에 울림을 준다. 과거형과 소망, 바람으로 적힌 가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옛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물방울을 연주하는 것 같은 피아노 소리와 애절한 바이올린 소리도 이 노래의 포인트 중 하나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역대급 충격적 트레이드... 루카 돈치치의 레이커스 이적



▲ 출처 : 포토뉴스

이번 트레이드도 인해 LA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얻었고 유타는 제일러트 후드시파노, 댈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를 영입했다. 이로 인해 댈러스는 2029년 1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얻고 유타는 2025년 2라운드 지명권을 가져간다. 레이커스, 댈러스 매버릭스, 유타 재즈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삼각

트레이드를 합의했다고 2월 2일 발표했다.

트레이드의 주요 인물인 돈치치와 데이비스는 지난 시즌 올 NBA 팀에도 이름을 올렸을 만큼 소속팀의 대표 간판스타이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다. 관계자와 동료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이번 트레이드는 현역 올 NBA 워너 2명이 다음 시즌 도중 서로 맞 트레이드된 최초의 사례다.

댈러스는 현재 서부 리그 8위로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비에 강하고 페인트존을 지배할 수 있는 데이비스를 영입했다. 그에 비해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은퇴가 가까워지고 구단의 차세대 라이징 스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가드와 포워드들을 넘나드는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의 새로운 돌파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치치는 레이커스 데뷔전에서 23분 33초 동안 출전하며 14-10의 상황에서 3점슛으로 잠식하며 총 14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평생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활약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노비츠키도 이 경기를 방문하며 돈치치를 응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트레이드된 루카 돈치치를 보고 더크 노비츠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댈러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전했다. 그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은 믿을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루카 돈치치 본인조차 트레이드가 진행된 상황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다는 말을 함께 덧붙였다. 루카 돈치치는 데뷔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팀과 팬들이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만큼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첫 데뷔무대에서 잘 적응한 탓일까, 이후 치뤄진 댈러스와의 첫 맞대결에서 레이커스가 107-99로 승리를 가져갔다. 시작 전부터 농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 경기에서 루카 돈치치는 19점 15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고 3개의 스티플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레이커스는 시즌 35승 21패를 쌓아 서부 콘퍼런스 4위를 달랐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루카 돈치치는 친척 팀과의 경기에 대해 “무척 이상한 순간이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기분이다. 경기를 하며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이 들었다.” 라고 밝혔다.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입이 가능해졌고 이후 그와 함께 뛰게 될 핸들러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트레이드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구단이 마음대로 선수를 내보내고 영입하는 트레이드 시스템의 문제점이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김민재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